“부진한 국내 소비와 수출 및 낮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유진투자증권의 고정수입 분석가 신동수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증가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세 감세와 같은 자극정책의 종결 및 기업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시행 역시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코카콜라의 최고 경영자 더글러스 이베스트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최근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코카콜라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베스터는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며칠 간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100명이 넘는 벨기에인들과 2명의 프랑스인들은 코카콜라에 의해 제조된 캔에 든 탄산음료를 마신 뒤 두통, 어지럼증, 및 복통을 호소했다.

“113년 동안 우리는 품질 면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신뢰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입니다.” 라고 이베스터는 말했다. “코카콜라는 제품의 최고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고객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신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이베스트는 덧붙였다.

처음에 코카콜라는 6월 9일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상 증세에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코카콜라 본사는 화요일에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기술 성명을 발표했다. “철저히 조사를 한 결과, 제품에서는 어떠한 위생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발생한 코카콜라 문제는 벨기에 시장에 국한된 것이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이러한 품질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코카콜라는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 현지공장의 코카콜라 제품의 탄산을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잘못된 사용이 음료의 맛을 변질시켰고 프랑스 덩케르크(Dunkirk) 현지공장의 살균제에 오염된 음료 캔 사용이 악취를 유발했다고 말했다.